

50년 창작의 여정 '돌아·봄'

오견규 화집 '목운 오견규' 출간 27일까지 관선재 갤러리 전시회 '예술 인생 오롯이' 매화 등 30점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그를 가리켜 '매화를 담은 화가'라고 했다. 매화는 사군자 '매란국죽(梅蘭菊竹)' 중 가장 앞자리에 자리한다. 이른 봄 화신을 전해주는 꽃이 매화다. 매화는 언 땅 위에 꽃을 피워낸다. 한기가 가지지 않은 철, 홀로 핀 매화는 아름답다. 여린 꽃잎에서 배어나오는 맑고 그윽한 향은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고고함과 고결함의 이미지는 곧잘 울곧은 선비에 비견된다.



목운 오견규 화백의 50년 창작 여정을 가능할 수 있는 전시가 27일까지 관선재서 열린다. '봄'.

오나 별다른 것 없이 닳아진 벼루와 헌붓, 저를 담은 작품 몇 점만 남았습니다. 이에 화집을 만들고 작은 작품으로 저를 돌아보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초대장에 실린 글은 지나온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의 시다. 예술과 삶을 몽롱그려 담백하게 표현해 놓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 화백은 에세이로 등단한 수필가다) '닳아진 벼루'와 '헌붓'이 환기하는 것은 남루함이 아니라 고고함일 것이다.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는 '현실의 관조, 그 담백하고 건강한 시적 감수성의 세계'에서 "그의 운필은 모나고 역센을 경계하며 부드럽고 운유한 가운데 단호하여 정감함이 두드러진다"고 평한 바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그윽한 향기가 이편을 맞이한다. '열은 열을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지닌 여러박빙(如履薄氷)의 마음으로 건너온 화평인생이 가능되었다. 그는 젊은 청춘의 시절 공무원을 하다 갑작스레 방향전환을 했다. 70년대 전일화관에서 열렸던 조방원 작품전을 봤던 게 계기였다. 요즘 말로 하면 단단히 '팔'이 뚫렸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던 때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모양이다. "스승의 작품에는 수목의 현묘한 맛이 있어요. 여느

작가들과는 다른 발목과 선염은 비교불가였습니다." 1970년대는 가히 한국화 전성시대라 해도 무방할 만큼 남도에는 많은 화가들이 활동을 했다. 아산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젊은 오견규 심중에 깃든 중심과 '인문의 씨앗'을 봤다는 것일 터다. '될 성부르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예와 같은 경우를 이룰 것이다. 전시실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우매재동창하(雨梅齋東窓下)'. 우매재의 동쪽 창 아래에 핀 매화는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가뻍지도 않다. 적정한 선의 감성이 투영된 작품은 보는 이에게 동일한 정감을 환기한다. 답답함과 서정이 팽팽한 균형을 이룬다. 가느다란 대나무를 화폭에 옮긴 작품은 오래도록 발길을 붙든다. 푸른 댓잎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쾌해진다. 다시금 돌아보고 돌아본다. 작가가 '돌아·봄'이라는 주제를 전시 제목으로 삼은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매화를 담은 화가 목운(木雲) 오견규'에서 "그림의 격조는 '눈에 보이는 것(形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意)'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는 지금 꽃피고 물흐르는 시간 앞에 서있다"며 "예술을 학문으로 여기며 여전히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를 사람들은 선비화라고 칭한다"가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베를린필 수석 에마누엘 파위 '플룻 선율'

광주시향, 4월 4일 통영국제음악제 협연 무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24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을 받아, 4월 4일 오후 7시에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 with 에마누엘 파위'를 선보인다.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진행하며, 광주시향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사진)가 협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작곡가 윤이상의 '바라'로 막을 연다. 특유의 기교와 창의성으로 칭송받는 칼 닐센 곡 '플루트 협주곡'도 들을 수 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E단조'도 울려 퍼진다. 파리음악원을 졸업한 에마누엘 파위는 고베,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2세에 클라уди오 아바도가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닉에 플루트 수석으로 입단, 현재까지 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벨기에 국립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첫 콘서트를 펼친 바 있다. 한편 '2024 통영국제음악제'는 '순간 속의 영원'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다. 아시아에서 초연하는 마르코앙드레 달바비의 '플루트 협주곡'을 비롯해 페테르 외트비스, 베를리오즈 등의 곡이 레퍼토리에 있다. A석 5만원, B석 3만원. 인터파크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문학과 문헌학의 길 위에 서서'

전남대 인문학 강연, 28일 김대현 교수

오늘날에는 한문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만큼 예전에 비해 관심이 높다. 은근치신 의미를 담고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문헌학과 연계돼 있다. 양 학문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문헌학의 경우 중국 큰 대학들은 문헌학 전공자들이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서지학이라고도 불리며, 대체로 옛날 자료를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문학과 문헌학을 모티브로 인문학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 인문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함께하는 인문학-호남에서 시작한 인문학 여정'의 일환으로 김대현(사진)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강의할



한다. 오는 28일 오후 6시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홀. '한문학과 문헌학의 길 위에 서서'를 주제로 한 강좌에서 김 교수는 지금까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해 온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김 교수는 "전공이 주로 한문학과 문헌학이었는데, 이번 '함께하는 인문학' 시간에는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를 할 것인지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기초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조사해야 우리 선조들이 남긴 학문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인 따라 졸졸·멍멍 '예쁜 스토커'

문희진, 27일까지 무등갤러리

잇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스토커'와 관련된 사건이다. 상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가하는 이를 '스토커'라 한다.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문희진 작가에게도 '스토커'가 있다. 그러나 그의 스토커는 사람이 아닌 예쁜 강아지다. 작가는 "모든 일상을 주시하며 탐색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흡사 스토커와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별명을 지어주었던 것. 문 작가가 '스토커'라는 주제로 27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작가는 "어찌된 남편보다 혹은 배 아파 낯은 자식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고 그리워한다"며 "삶의 분주함으로 귀찮을 때도 있지만 불편한 나에게 늘 한결같은 착한 마음씨를 보여준다"고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외출'이라는 작품은 강아지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인을 주시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화면 속 작가는 거울을 바라보며 루즈를 질하고 있고, 강아지는 뒤에서 그 장면을 몰그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울에 비친 강아지의 시선은 오매불망 자신을 바라봐 달라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분리불안'의 작품은 현관문 앞에서 몰그리며 문을 바라보고 있는 강아의 모습을 초점화했다. 현관 안쪽에 앉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태도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문 작가는 "때론 나의 이기적 사랑이 강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며 "내 강아지가 바라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주인 아줌마와 좌충우돌 동거생활을 기록하듯 작업했다"고 전시 의미를 밝혔다. 한편 문 작가는 홍익대 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닭날다' 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물과색 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stalker'

ACC, 직군탐색 장기과정 희망자 모집

'사운드 디자이너'·'아트 아키비스트 과정' 등

'사운드 디자이너', '아트 아키비스트 과정', '융·복합문화기획자 교육', '사운드 엔지니어 과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문화예술 분야 이룬,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오는 4~11월까지 운영하는 ACC 직군탐색 장기 과정이 그것. 강좌별로 심사를 통해 15명씩 선발하며, 희망자는 ACC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운드 디자이너' 강좌에서는 음악감독인

허동이 사운드 디자인의 개념, 현장 실용 지식 등을 강의한다. '아트 아키비스트' 강좌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사례 등을 들려준다. 이지는 아키비스트 강사, 김선혁 레벨나인 대표, 조은성-주은정 서울 시립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등이 아트 아카이브 구축, 분석과 보존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화기획자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융·복합 문화기획자 강좌'는 권태현 독립큐레이터가 참여

한다. 권 큐레이터는 '기획자는 어떤 역량과 감각을 지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실질적인 기획서 작성 등을 토대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사운드 엔지니어 강좌'는 권지후 마스터어쿠스틱스 대표, 장태성 링스미디어 대표, 김병현 사운드 테일 대표 등 3명의 강사와 함께 다양한 현장 업무를 익힌다. 곡 공연을 비롯해 녹음 스튜디오, 후반 작업 분야 현장 업무 및 기술이 포함돼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직군탐색 장기과정은 청년층 등의 미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문화예술 분야 이룬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전문가들의 시기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진도깨비(왼쪽)와 우리가 안무를 펼치고 있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도깨비야! 완도·구례·해남 가니?

남도국악원 어린이 국악극... 26일 완도·30일 구례·10월 11일 해남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천하장사 '우리', 도깨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진도깨비'. 둘은 진도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만나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이 깃든 천년나무를 찾는 여정에 오른다. 천년나무가 있다는 '관매도'로 향하는 노정 속에서 타자였던 이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 함께'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를 세 차례에 걸쳐 완도, 구례, 해남에서 각각 펼친다.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대극장, 30일 오후 3시 구례문화예술회관 공연등을 비롯해 10월 11일 오후 2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번 공연은 전라남도 지역 문화회관 활성화와 함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업공연' 사업 일환으로 열린다. '우리랑 진도깨비'는 2020년 초연했으며 전국 박물관 및 공연시설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수십회 공연을 펼쳐 왔다. 국악원의 타악, 현악 연주자 등이 공연 중 우리 신명을 곁들여 '흥'을 돋굴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프닝은 도깨비 마을을 떠나는 진도깨비의 모습을 담은 공연 '깨비'로 막을 연다. 이어 천년나무 향해 떠나는 과정 중 깨비의 거짓말이 탄로 나는 씬 '여행', 매화 따기를 실패하다 서로 진심을 나누는 '친구', 서로 우정을 확인하며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화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 역에 지선화, 진도깨비 역에 양혜인이 출연한다. 박성영(할머니·누리 등), 이진호(아저씨·친구 등)를 비롯해 장예은(가야금), 변정섭(피리·생황), 김형주(타악)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국악원 장악과 선단이 흥보담당은 "어린이 국악극을 기치로 내걸지만 이번 공연은 한국적인 멋과 흥이 잘 녹아든 작품으로, 어른부터 아이 할 것 없이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즐거운 한 판 놀이'에 가깝다"며 "우리는 진정성과 공동체성, 깨비는 해학과 풍자를 의미해 웃음과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화두로 던지는 작품이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